

9/3/23

설교 제목: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4 장 1-16 절

-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엡 4:2)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엡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엡 4: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엡 4: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엡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 (엡 4: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 (엡 4: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 (엡 4: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엡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엡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 (엡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반부 (1-3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후반부 (4-6 장)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관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본문은 후반부의 첫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언급하며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전반부에서 설명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변화된 신분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합당하게'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피값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 피값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가 되는 것이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엡 4: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신분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되는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 됨을 새로이 만들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낮아져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화내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기질이나 재능도 다르고, 경험이나 관심사도 다르고, 생각이나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도 다른 각각을 한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으로 하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엡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엡 4: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엡 4: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는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주님인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에 다툼 등으로 인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 언급합니다.

(엡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엡 4: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엡 4: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엡 4: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임들과 그 직임을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엡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직임을 세운 목적이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에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엡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을 위해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온 몸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소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성장을 위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없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자기의 맡은 소임을 수행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가장 다양한 다름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름이 곧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음이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다름은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한 사람이 채워 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달라야 더 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정말 다릅니다.

그렇지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 주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수준, 삶의 방식, 삶의 이해,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름을 넘어서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면, 이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위와 신분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디다.
주님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삶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맺는 삶을 삽시다.
머리되신 주님께 붙어서 각자 지체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며 삽시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며 삽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